

2024. 5. 21.(화) 석간용

이 보도자료는 2024년 5월 21일 오전 06: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보도자료

담당 부서: 주택정책실 주거안심지원반

주거안심지원반장

홍성수

2133-9573

주거안심동행팀장

김경란

2133-9590

사진 없음 사진 있음 쪽수: 4쪽

관련 누리집

housing.seoul.go.kr

서울시, 주거취약가구 방수단열시공... 민관협력 집수리 지원범위 늘린다

- 20일(월) '서울시-서울보증보험-한국해비타트 업무협약' 체결, 사업비 후원 및 공사지원
- 올해 총지원 규모 50가구 목표, 기업·비영리단체와 추가협약 체결 계획
- 기존 반지하에서 옥탑방·최소 주거면적 이하 저층주택까지 지원범위 확대·주거환경 개선

- 서울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민간기업, 비영리단체와 함께 주거취약 가구 대상 집수리 공사를 지원한다.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 지원대상이었던 반지하주택은 물론 옥탑방, 최소주거면적(예. 2인가구 기준 26㎡) 이하 저층주택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한다.
- 서울시는 「2024년 주거안심동행 민관협력사업」 추진을 위해 20일(월) 오후 2시 서울시청에서 '서울보증보험·한국해비타트'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. 올해 민관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첫 협약이며, 앞으로도 기업의 사회공헌활동과 연계하여 기업·비영리단체와 추가로 협약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.

- 협약식에는 한병용 주택정책실장, 조흥진 서울보증보험 수석부문장, 이광희 한국해비타트 사무총장이 참석했다.
- 우선 ‘서울보증보험’이 신규 후원사로 참여해 집수리 사업비 1억5000 만원을 후원하며 ‘한국해비타트’는 가구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공사를 담당하게 된다.
 - 서울보증보험의 지원을 받게 될 가구는 자치구의 현장실사를 통한 추천 및 선정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게 결정되며, 올해 9월까지 시공을 완료할 예정이다.
- 시는 지난 '22년 여름 반지하 침수피해 사건을 계기로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취약계층을 위해 민간기업, 비영리단체와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「주거안심동행 민관협력사업」을 추진하고 있다.
- 올해 지원가구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총 50가구를 목표로 하며, 지원 내용은 단열·방수 등 주택성능개선과 도배·장판 등 내부환경 공사 등이다.
 - 주거안심동행 민관협력사업은 첫해인 '22년 시범사업 9가구를 시작으로 '23년에도 50가구를 선정해 공사를 진행, 올해 6월 시공완료 예정이다.
-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“주거약자들이 따뜻하고 안전한 보금자리에서 희망의 빛을 찾도록 민관이 함께하는 따뜻한 동행을 계속해 나갈 것”이라며 “앞으로도 더 많은 후원기업·비영리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”고 말했다.

※ 붙임 : 주거안심동행 민관협력사업 업무협약 체결식 개요 및 사진

- 주거안심동행 민관협력사업을 위한 -

서울시-서울보증보험-한국해비타트 업무협약 체결

□ 개 요

- 일 시 : '24. 5. 20.(월) 14:00~14:20
- 장 소 : 대회의실(서울시청 서소문 2청사 20층)
- 주요내용 : 인사말씀, 협약체결, 기념촬영 등
- 참 석 자 :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, 조홍진 서울보증보험 수석부문장,
이광희 한국해비타트 사무총장

□ 주요 협약내용

- (서울특별시) 지원대상 추천 및 행정지원 제공
- (서울보증보험) 지원사업비 후원(1억5천만원)
- (한국해비타트) 사업 주관 및 결과 보고

□ 진행순서

구 분	시 간	내 용	비 고
협약식	14:00~14:03 (3')	○ 내빈소개 및 협약내용 설명	
	14:03~14:08 (5')	○ 주거안심동행 민관협력사업 소개 및 성과 영상시청	
	14:08~14:15 (7')	○ 협약 당사자 인사말씀	
	14:15~14:17 (2')	○ 협약서 서명 및 교환	
	14:17~14:20 (3')	○ 기념촬영 및 폐회	



<사진 설명 : 왼쪽부터 이광희 한국해비타트 사무총장,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, 조홍진 서울보증보험 수석부문장>



<업무협약식 참석자 단체사진>